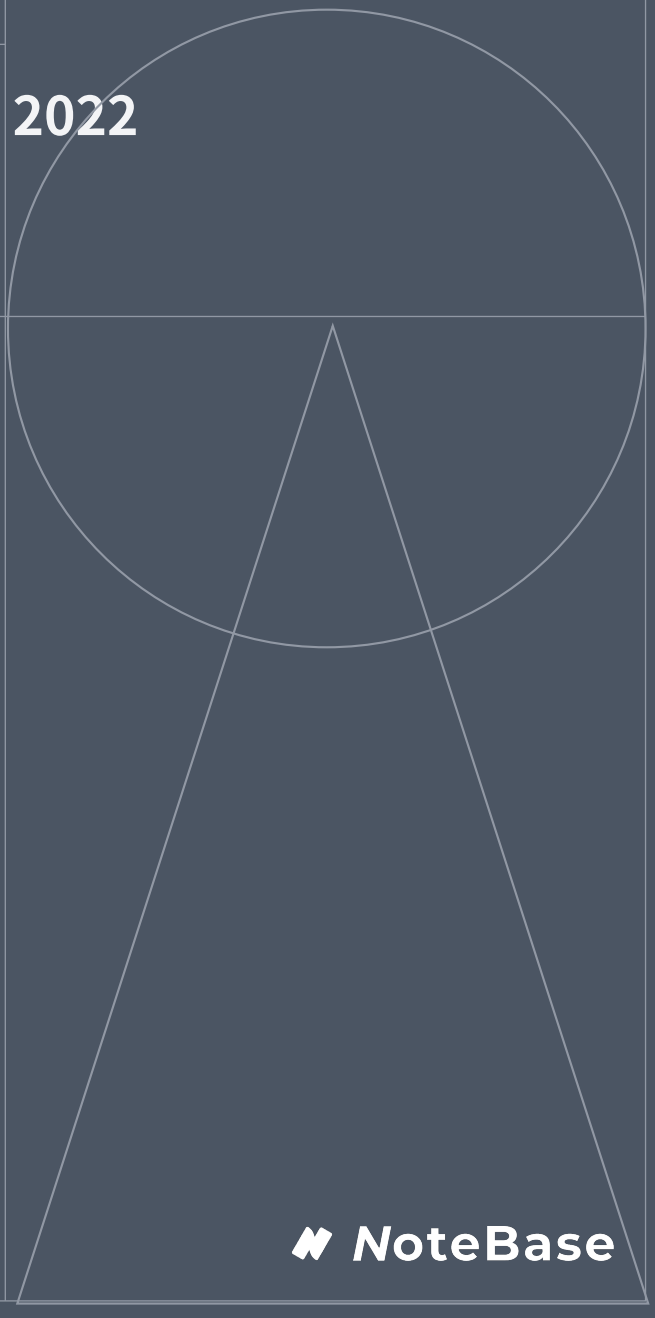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2

공무원/지방직/9급 · 국어 · 2022

문 1. 언어 예절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금부터 회장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② (시누이에게) 고모, 오늘 참 예쁘게 차려 입으셨네요?

③ (처음 자신을 소개하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박혜정입니다.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가리키며)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처음 만난 사람에게는 **'뵙겠습니다'로 상대를 높여** 인사하고, '박혜정입니다'처럼 자신의 이름을 밝혀 소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시다'는 사람이 어느 곳에 머물거나 존재함을 높여 이르는 말이다. 이 문장의 주어는 회장님이 아니라 '말씀'이므로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친다. 회장님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 회장님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도 쓸 수 있다.

② X: 전통적인 표준 화법에서 시누이를 직접 부를 때는 남편의 누나이면 **'형님'**, 남편의 여동생이면 **'아가씨' 또는 '아기씨'**라고 한다. '고모'는 자녀의 처지에서 시누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므로, 시누이를 직접 부르는 호칭과 구별해야 한다.

③ O: '뵙다'는 웃어른을 대하여 본다는 뜻으로, 만나는 상대를 높이는 말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처음 뵙겠습니다'**라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이어서 '박혜정입니다'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으므로 첫 만남의 자기소개 상황에 맞는다.

④ X: '부인'은 **남의 아내를 높여 이르는 말**이므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다. '이쪽은 제 아내입니다'로 고친다.

NoteBase

문 2. 다음 글의 주된 서술 방식은?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을 가제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칠십 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① 묘사
② 설명
③ 유추
④ 분석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달빛의 색과 밝기, 밤길의 고요함을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독자가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이처럼 대상의 모습과 분위기를 **생생하게 그려 내는** 서술 방식이 묘사이다.

개념 구분

묘사: 대상의 모습이나 상태를 감각적으로 표현하여 눈앞에 있는 듯이 그려 내는 방식이다. 이 글은 '부드러운 빛', '푸르게 젖었다'로 달밤의 색채와 밝기를 드러내고, '달의 숨소리'가 들린다는 표현으로 깊은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 달밤의 풍경과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것이 중심이므로 주된 서술 방식은 묘사이다.

설명·분석과의 구별: 설명은 대상의 성질이나 원리를 알기 쉽게 풀어 주는 방식이며, 분석은 대상을 구성 요소로 나누어 살피는 방식이다. 이 글은 달빛이 생기는 원리를 풀이하지 않으며, 밤길을 고개·개울·벌판·산길로 제시한 부분도 그 구성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동할 공간과 주변 풍경을 구체화**하는 데 쓰였다.

유추와의 구별: 유추는 두 대상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한 대상의 다른 특성을 미루어 판단하는 방식이다.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는 달밤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만드는 비유 표현이다. 짐승과 달의 공통점에서 달의 새로운 성질을 추론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유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유추가 되지는 않는다**.

NoteBase

문 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출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가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즉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연출자가 주관적으로 창작성이 있다고 느끼는 부분일지라도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이미 공연 예술 무대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 기법일 수 있고,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닌 아이디어의 요소와 보호 가능한 요소인 표현이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쉬운 예로 셰익스피어를 보자. 그의 명작 중에 선대에 있었던 작품에 의거하지 않고 탄생한 작품이 있는가. 대부분의 연출자는 선행 예술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창작에 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럽다. 따라서 무대연출 작업 중에서 독보적인 창작을 걸러내서 배타적인 권한인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매우 흔치 않은 경우이고,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① 무대연출의 창작적인 표현의 도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다.

②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려면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③ 독보적인 무대연출 작업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④ 저작권법의 목표는 창작자의 창작을 장려하고 일반 공중의 저작물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무대연출은 선행 예술가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창작에 배타적인 저작권을 부여하면 **후발 창작을 방해할 수도 있다**. ③의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하여 글의 내용과 어긋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은 창작적인 표현을 도용당했는지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연출자가 독창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도 객관적으로는 흔한 표현 기법일 수 있고,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와 보호 가능한 표현이 얽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② O: 글의 첫머리에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려면 우선 **유효한 저작권을 소유**해야 한다고 밝힌다. 이를 저작권 보호 가능성이 있는 창작물이 필요하다는 말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③ X: 글은 대부분의 연출자가 선행 예술가의 영향을 받아 창작한다고 설명한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무대연출에 배타적인 권한을 부여하면 이후의 창작을 제약할 수 있다. 따라서 '후발 창작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후발 창작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로 고쳐야 한다. 반드시 방해한다는 뜻이 아니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④ O: 마지막 문장은 창작자에게 개인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창작을 장려하는 것과 일반 공중이 저작물을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저작권법의 목표로 제시한다. 선지는 이 두 가치를 모두 담고 있다.

NoteBase

문 4.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파놉티콘(panopticon)은 원형 평면의 중심에 감시탑을 설치해 놓고, 주변으로 빙 둘러서 죄수들의 방이 배치된 감시 시스템이다. 감시탑의 내부는 어둡게 되어 있는 반면 죄수들의 방은 밝아 교도관은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교도관을 바라볼 수 없다. 죄수가 잘못했을 때 교도관은 잘 보이는 곳에서 처벌을 가한다. 그렇게 수차례의 처벌이 있게 되면 죄수들은 실제로 교도관이 자리에 ㉠있을 때조차도 언제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 공포감에 의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 이렇게 권력자에 의한 정보 독점 아래 ㉡다수가 통제된다는 점에서 파놉티콘의 디자인은 과거 사회 구조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현대사회는 다수가 소수의 권력자를 동시에 감시할 수 있는 시놉티콘(synopticon)의 시대가 되었다. 시놉티콘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터넷의 ㉢동시성이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오면서 언론과 통신이 발달했고, ㉣특정인이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비판적 인식 교류와 부정적 현실 고발 등 네티즌의 활동으로 권력자들을 감시하는 전환이 일어났다.

① ㉠을 '없을'로 고친다.
② ㉡을 '소수'로 고친다.
③ ㉢을 '익명성'으로 고친다.
④ ㉣을 '누구나가'로 고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파놉티콘에서는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권력자가 **다수를 통제**한다. ㉡은 통제하는 주체가 아니라 통제받는 대상을 가리키므로, '소수'로 바꾸지 않고 **'다수'를 유지**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죄수는 감시탑 내부를 볼 수 없어 교도관이 자리에 있는지 알 수 없다. 처벌을 반복해서 경험하면 실제로 교도관이 **없을 때조차** 감시받고 있다고 두려워하며 스스로 행동을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을 '없을'로 고치면 자기 감시가 지속된다는 문맥에 맞는다.

② X: '통제된다'의 주체는 감시받는 죄수들에 해당하는 다수이다. 정보를 독점한 소수의 권력자는 통제하는 쪽이고, 다수는 **통제받는 쪽**이다. 따라서 ㉡을 '소수'로 고치면 두 집단의 역할이 뒤바뀌므로, 원래 표현인 '다수'를 유지해야 한다.

③ O: 바로 뒤의 '신변 노출 없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고쳐 쓸 말의 근거이다.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성질은 **익명성**이다. 여러 사람이 같은 시간에 활동할 수 있다는 '동시성'으로는 신변 노출 없이 비판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없으므로 ㉢을 '익명성'으로 고친다.

④ O: 둘째 문단은 다수가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게 된 변화를 설명한다. 정보 수용·생산 주체가 넓어져 네티즌들이 비판적 인식을 교류하고 부정적 현실을 고발한다는 흐름이므로, ㉣은 '특정인이'보다 **'누구나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문 5.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산(山)새도 오리나무
위에서 운다
산새는 왜 우노, 시메산골
영(嶺) 넘어가려고 그래서 울지

눈은 내리네, 와서 덮이네
오늘도 하룻길은
㉡ 칠팔십 리(七八十里)
돌아서서 육십 리는 가기도 했소

㉢ 불귀(不歸), 불귀, 다시 불귀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산새도 오리나무
㉣ 위에서 운다
삼수갑산 가는 길은 고개의 길

— 김소월, 「산」 —

① ㉠은 시적 화자와 상반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② ㉡은 시적 화자에게 놓인 방랑길을 비유한다.
③ ㉢은 시적 화자의 이국 지향 의식을 강조한다.
④ ㉣은 시적 화자가 지닌 분노의 정서를 대변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오늘도 하룻길은 칠팔십 리'에서 긴 거리를 날마다 걷는 모습은 화자의 **고단한 방랑길**을 드러낸다. '칠팔십 리'는 단순한 거리 표시를 넘어 떠돌아야 하는 화자의 삶을 나타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산새는 '영 넘어가려고' 울고, 화자도 '삼수갑산 가는 길'에서 고개를 넘어야 한다. 산새는 화자와 상반되는 존재가 아니라, **고개를 넘어가는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존재이다. 화자는 산새의 울음에 자신의 서러운 마음을 겹쳐 드러낸다.

② O: '칠팔십 리'는 화자가 하루 동안 걸어야 하는 먼 거리이다. 여기에 '오늘도'라는 표현이 더해져 긴 여정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 거리는 화자에게 놓인 **계속되는 고단한 방랑길**을 비유적으로 드러낸다.

③ X: '불귀'는 돌아가지 못하는 화자의 처지와 관련된다. 이를 반복한 뒤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라고 하여, 돌아가지 못하면서도 오랜 정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낯선 나라를 동경하는 이국 지향 의식이 아니라 **돌아가지 못하는 슬픔과 그리움**이다.

④ X: 산새의 울음은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에 드러난 화자의 마음과 연결된다. 화자는 잊지 못하는 정을 안고 고개의 길을 가고 있으므로, '위에서 운다'는 분노보다 **그리움과 서러움**을 대변한다.

NoteBase

문 6. 다음 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
"그런 거 같아요."
"또 알우? 인연이 닿아서 말뚝 박구 살게 될지. 이런 때 아주 뜨내기 신셀 청산해야지."
영달이는 시무룩해져서 역사 밖을 멍하니 내다보았다.
백화는 뭔가 쑤군대고 있는 두 사내를 불안한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영달이가 말했다.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
"삼포엘 같이 가실라우?"
"어쨌든……."
영달이가 뒷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오백 원짜리 두 장을 꺼냈다.
"저 여잘 보냅시다."
영달이는 표를 사고 삼립빵 두 개와 찐 달걀을 샀다. 백화에게 그는 말했다.
"우린 뒤차를 탈 텐데…… 잘 가슈."
영달이가 내민 것들을 받아 쥔 백화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 여자는 더듬거리며 물었다.
"아무도…… 안 가나요?"
"우린 삼포루 갑니다. 거긴 내 고향이오."
영달이 대신 정 씨가 말했다. 사람들이 개찰구로 나가고 있었다. 백화가 보퉁이를 들고 일어섰다.
"정말, 잊어버리지…… 않을게요."
백화는 개찰구로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 돌아온 백화는 눈이 젖은 채로 웃고 있었다.
"내 이름 백화가 아니에요. 본명은요…… 이점례예요."
여자는 개찰구로 뛰어나갔다. 잠시 후에 기차가 떠났다.
— 황석영, 「삼포 가는 길」에서 —

① 정 씨는 영달이 백화와 함께 떠날 것을 권유했군.
② 백화는 영달의 선택이 어떤 것일지 몰라 불안했군.
③ 영달은 백화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같이 떠나지 않았군.
④ 백화가 자신의 본명을 말한 것은 정 씨와 영달에 대한 고마움의 표현이었군.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영달은 백화가 좋은 여자라는 정 씨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고 말한다. 함께 떠나지 않은 이유는 백화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함께 정착해 살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정 씨는 '같이 가시지. 내 보기엔 좋은 여자 같군'이라며 영달에게 백화와 동행할 것을 권한다. 이어 인연이 닿아 정착할 수도 있다며, 백화와 함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기**를 바란다.

② O: 백화는 두 사내가 쑤군대는 모습을 '불안한 듯이' 지켜본다. 이후 '아무도…… 안 가나요?'라고 묻는 모습에서도 영달이 동행하기를 기대했으며,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몰라 불안해했음**을 알 수 있다.

③ X: 영달은 백화가 좋은 여자라는 정 씨의 말에 '그런 거 같아요'라고 동의한다. 백화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어디 능력이 있어야죠'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백화와 함께 정착할 능력이 없다고 여겨** 동행하지 않은 것이다. 백화의 차표와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는 행동에서도 그를 배려하는 마음이 드러난다.

④ O: 백화는 영달이 마련해 준 차표와 먹을 것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며, 두 사람을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이어 돌아와 본명인 '이점례'를 밝힌다. 이처럼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실제 이름을 알려 주는 행동은 두 사람의 따뜻한 배려에 대한 **고마움과 진심**을 드러낸다.

NoteBase

문 7. 다음 글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과거에는 고통만을 안겨 주었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반도는 사람과 물자가 모여드는 동북아 물류와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합니다.
(나) 100년 전 우리는 수난과 비극의 역사를 겪었습니다. 해양으로 나가려는 세력과 대륙으로 진출하려는 세력이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인력과 세계 선두권의 정보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다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물류 기반도 손색이 없습니다.
(라) 그 아픔은 분단으로 이어져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불행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변방으로 머물러 왔던 동북아시아가 북미·유럽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① (가)－(나)－(다)－(라)
② (가)－(라)－(나)－(다)
③ (나)－(가)－(라)－(다)
④ (나)－(라)－(다)－(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라)의 **'그 아픔'**은 (나)의 국권 상실을 가리킨다. (라)에서 제시한 새로운 희망을 (다)의 경제적 역량으로 뒷받침한 뒤, (가)에서 한반도의 미래 전망과 실천 의지로 마무리한다.

NoteBase

올바른 순서

(나) → (라) → (다) → (가)

(나): '100년 전'의 수난과 국권 상실을 제시하며 이야기를 시작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조건이 과거에 어떤 고통을 안겨 주었는지 설명하므로 뒤에 나올 변화와 전망의 출발점이 된다.

(라): 첫머리의 **'그 아픔'**은 (나)의 '국권을 상실하는 아픔'을 받는다. 국권 상실의 아픔이 분단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 다음, '그러나 이제'를 통해 불행한 과거에서 동북아시아가 세계 경제의 주요 축으로 떠오르는 현재의 희망으로 화제를 전환한다.

(다): (라)가 제시한 동북아시아의 경제적 부상을 이어 받아, 경제력이 국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우리나라가 갖춘 역량을 구체화한다. 우수한 인력, 정보화 기반, 물류 기반은 우리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는 **구체적 근거**가 된다.

(가): (다)에서 확인한 경제적 역량을 바탕으로 한반도가 동북아의 물류·금융·비즈니스 중심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고통'이던 지정학적 조건이 '이제는 희망의 조건'이 되었다고 앞의 내용을 종합하고, **'우리가 주도해서'**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 가자는 의지로 글을 끝맺는다.

NoteBase

문 8. 다음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예은 씨. 오늘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좋겠네요.
B: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오늘 회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메일로 공유하면 되겠지요?
A: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B: 네. 그럼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 팀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팀원에게 메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A: 예은 씨. 그런데 개조식으로 회의 내용을 요약하는 방식에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B: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 개조식으로 요약할 경우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겠네요.

① A는 B에게 내용 요약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② A와 B는 대화 중에 공감의 표지를 드러내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다.

③ B는 회의 내용 요약 방식에 대한 A의 문제 제기에 대해 자신이 다른 입장임을 드러내고 있다.

④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이 회의 내용을 과도하게 생략하여 이해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A와 B는 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말에 호응한다. A의 '맞습니다'와 B의 '그렇겠네요'도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X: A는 회의 내용을 팀원들에게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고, 개조식 요약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고 묻는다. 구체적인 요약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이다. B가 '회의 내용은 개조식으로 요약하고'라고 말한다.

② O: 공감의 표지는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거나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이다. A는 B가 회의 내용을 요약하여 메일로 공유하면 되는지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라고 답한다. B도 A의 문제 제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겠네요'라고 응답한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며 듣고 있다.

③ X: B는 A의 문제 제기에 '그렇겠네요'라고 응답하고, 개조식 요약으로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는 다른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A의 우려에 동의**하고 그 이유를 구체화하는 말이다.

④ X: A는 개조식 요약 방식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라고 물을 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직접 밝히지는 않는다. 회의 내용이 과도하게 생략되어 이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명시한 사람은 B**이다. A의 문제 제기와 B가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를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문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올해 A시는 '청소년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청소년 의회 교실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의회 교실의 참가자 선정 및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는 지방자치 및 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최근 A시는 '수업 시간 스마트폰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주제로 본회의장에서 첫 번째 의회 교실을 운영하였다. 참석 학생들은 1일 시의원이 되어 의원 선서를 한 후 주제에 관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한 후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 투표로 표결 처리하였다. 학생들이 의회 과정 전반에 대해 체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① A시에 있는 학교의 만 19세 미만 재학생은 청소년 의회 교실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이다.

② A시의 시의회 의장은 청소년 의회 교실의 민주 시민 소양과 관련된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A시에서 시행된 청소년 의회 교실에서 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해 주었다.

④ A시의 올해 청소년 의회 교실은 의원 선서, 조례안 상정, 자유 발언, 찬반 토론, 전자 투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는 자유 발언과 조례안 상정의 순서를 바꾸어 제시했다. 글에서는 의원 선서 후 **자유 발언을 먼저 하고 조례안을 상정**한 뒤, 찬반 토론과 전자 투표를 진행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참여 대상은 **A시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선지는 학교의 소재지, 재학 여부, 나이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② O: 시의회 의장은 참가자 선정과 운영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운영 방안에 **민주 시민의 소양과 자질에 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므로, 의장이 해당 교육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이해는 글에 부합한다.

③ O: 시의회 의장은 고유 권한으로 본회의장 시설 사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실제 첫 번째 의회 교실도 **본회의장에서 운영**되었다. 이 두 내용을 연결하면 의장이 본회의장 시설을 사용하도록 지원했다는 이해가 가능하다.

④ X: 글에 제시된 진행 순서는 '의원 선서 → 자유 발언 → 조례안 상정 → 찬반 토론 → 전자 투표'이다. 학생들이 의원 선서 후 자유 발언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조례안을 상정했다고 했으므로 **자유 발언이 조례안 상정보다 앞선다**. 선지의 두 절차 순서를 서로 바꾸어야 한다.

NoteBase

문 10. 단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난: 한자어 '간난'에서 'ㄴ'이 탈락하면서 된 말이다.

② 어리다: '어리석다'는 뜻에서 '나이가 적다'는 뜻으로 바뀐 말이다.

③ 수탉: 'ㅎ'을 종성으로 갖고 있던 '숳'에 'ᄃᆞᆰ'이 합쳐져 이루어진 말이다.

④ 점잖다: '의젓함'을 나타내는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점잖다'는 **'젊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옛말이 줄어든 말**이다. '점잖이'에 '하다'가 붙어 형성된 말이 아니다.

선지별 해설

① O: '가난'은 한자어 '간난(艱難)'에서 **첫음절 받침 'ㄴ'이 탈락**하여 된 말이다. '간난'은 몹시 힘들고 고생스러움을 뜻했으며, '가난'은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못함을 뜻하게 되었다.

② O: '어리다'는 옛날에 '어리석다'라는 뜻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나이가 적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단어의 형태는 유지되면서 가리키는 의미가 달라진 **의미 이동**의 사례이다.

③ O: '수탉'은 'ㅎ'을 종성으로 지녔던 '숳'에 'ᄃᆞᆰ'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다. 이때 **'ㅎ'과 'ㄷ'이 합쳐져 거센소리 'ㅌ'**이 되었으며, '수탉'의 'ㅌ'에 옛 받침 'ㅎ'의 흔적이 남아 있다.

④ X: '점잖다'는 **'젊지 아니하다'에 해당하는 옛말이 줄어든 말**로, '점잖이 + 하다'로 형성된 것이 아니다. '젊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언행이나 태도가 의젓하고 신중하다'라는 의미로 이어진 것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예전에 '혐오'는 대중에게 관심을 끄는 말이 아니었지만, 요즘에는 익숙하게 듣는 말이 되었다. 이는 과거에 혐오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다. 단지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문제가 폭발하듯 가시화되었다는 뜻이다. 혐오 현상은 외계에서 뚝 떨어진 괴물이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거기엔 자체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반드시 선행한다.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주의 사항이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특정 감정에 집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혐오가 주제인데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니, 얼핏 이율배반처럼 들리지만 이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왜 혐오가 나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나쁜 감정이니까 나쁘다.", "약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게 만드니까 나쁘다." 이 대답들은 분명 선량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 혐오나 증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우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쉬워진다. 인과관계를 혼동하면 곤란하다. 우리가 문제시하고 있는 각종 혐오는 자연 발생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다.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혐오는 증상이다. 증상을 관찰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매몰되면 곤란하다. 우리는 혐오나 증오 그 자체를 사회악으로 지목해 도덕적으로 지탄하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한다.

① 혐오 현상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 혐오 현상은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③ 혐오 현상을 만들어 내는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

④ 혐오라는 감정에 집중할수록 사회문제는 잘 보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혐오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감정이자 사회문제가 드러난 **결과·증상**이다. 따라서 혐오 감정을 도덕적으로 비난하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만들어 낸 역사와 사회적 배경**을 살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첫 문단은 혐오 현상에 역사와 사회적 배경이 선행한다고 설명한다. 마지막 문단도 혐오를 사회문제의 결과이자 증상으로 본다.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원인에 의해 혐오가 형성된다**는 것이 글의 설명이다.

② X: 글쓴이는 혐오를 비판하는 대답들이 선량한 마음에서 나왔음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대답이 문제의 성격을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선량한 마음으로 바라보자는 것이 주제가 아니라, **도덕적 지탄에 그치지 않고 혐오의 원인을 살피자**는 것이 주제이다.

③ O: 글쓴이는 혐오를 사회문제의 기원이나 원인이 아니라 '발현이며 결과', 곧 '증상'이라고 규정한다. 증상을 관찰하되 거기에만 매몰되거나 혐오 자체를 지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마지막 문단은, **혐오를 만들어 낸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는 첫 문단의 역사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설명도 포괄한다.

④ X: 둘째 문단은 혐오 감정에 집중할수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바라보는' 잘못을 범하기 쉽다고 말한다. 여기서 손가락은 겉으로 드러난 혐오 감정에, 달은 그 이면의 사회문제에 대응한다. 따라서 감정에만 집중하면 사회문제가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원인을 놓치기 쉽다**.

NoteBase

문 1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有此茅亭好 이 멋진 ㉠초가 정자 있고
綠林細徑通 수풀 사이로 오솔길 나 있네
微吟一杯後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高座百花中 온갖 꽃 속에서 ㉡높다랗게 앉아 있네
丘壑長看在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
樓臺盡覺空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
莫吹紅一點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
老去惜春風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구나
— 심환지, 「육각지하화원소정염운(六閣之下花園小亭拈韻)」 —

① ㉠: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하고 있다.

② ㉡: 시적 화자의 초연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③ ㉢: 자연에 대비되는 쇠락한 인간사를 암시하고 있다.

④ ㉣: 꽃잎을 흔드는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하고 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 '초가 정자'는 화자가 자연 속에 머무는 **공간적 배경**이다. 시간의 변화를 알려 주거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시상을 이어 주는 소재로 볼 근거는 없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초가 정자'는 수풀과 오솔길, 온갖 꽃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화자가 술을 마시고 시를 읊는 **공간적 배경**이다. 정자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거나 서로 다른 시간대를 연결하지는 않으므로, '시간적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매개한다'는 설명은 공간적 배경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고쳐야 한다.

② O: ㉡ '높다랗게'는 '술 한 잔 하고 시를 읊조리면서', '온갖 꽃 속에서'라는 구절과 함께 읽어야 한다. 자연에 둘러싸여 술과 시를 즐기며 앉아 있는 모습은 **세속의 일에서 벗어난 여유와 초연함**을 드러낸다.

③ O: '산과 계곡은 언제 봐도 그대로건만'과 '누대는 하나같이 비어 있구나'가 대비된다. 자연은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사람이 지은 ㉢ '누대'는 비어 있으므로, 이 대비는 **인간사의 쇠락과 무상함**을 암시한다.

④ O: 화자는 '붉은 꽃잎 하나라도 흔들지 마라'라고 한 뒤 늙어갈수록 봄바람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 '봄바람'은 **꽃잎을 흔들어 봄의 아름다움을 훼손할 수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진다. 봄을 붙잡아 두려는 화자의 마음에서 보면 부정적 이미지로 기능한다.

NoteBase

문 13. 밑줄 친 단어 중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① 선생님께서는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셨다고 한다.

② 그는 수완이 좋아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

③ 여러 팀이 우승을 위해 긴 시간 동안 각축을 벌였다.

④ 사업단의 발족으로 미뤄 뒀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각축(角逐)'의 '각(角)'은 **뿔**, '축(逐)'은 쫓음을 뜻하므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을 다리를 뜻하는 '각(脚)'과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슬하(膝下): '슬(膝)'은 **무릎**, '하(下)'는 아래를 뜻한다. 무릎 아래라는 뜻에서 부모의 보살핌 아래를 이르는 말로 쓰인다.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슬'이 포함되어 있다.

② 수완(手腕): '수(手)'는 **손**, '완(腕)'은 팔을 뜻한다. 문장에서는 일을 계획하거나 처리해 나가는 솜씨를 의미하지만, 단어를 이루는 한자에는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각축(角逐): '각(角)'은 **뿔**, '축(逐)'은 쫓음을 뜻하며, '각축'은 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일을 이른다. 뿔은 사람의 신체 부위가 아니며, '축'도 신체 부위를 가리키지 않는다. '각'은 다리를 뜻하는 '각(脚)'과 다른 한자이다.

④ 발족(發足): '발(發)'은 일어남이나 시작함을, '족(足)'은 **발**을 뜻한다. 단체나 조직이 새로 만들어져 활동을 시작한다는 의미로 쓰이며, 신체 부위를 가리키는 말은 '발'이라는 음절이 아니라 '족(足)'이다.

슬하·수완·발족에는 각각 무릎·손과 팔·발을 뜻하는 한자가 들어 있으므로, 사람의 몸을 지시하는 말이 포함되지 않은 단어는 ③의 '각축'이다.

NoteBase

문 1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계월이 여자 옷을 벗고 갑옷과 투구를 갖춘 후 용봉황월(龍鳳黃鉞)과 수기를 잡아 행군해 별궁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군사를 시켜 보국에게 명령을 전하니 보국이 전해져 온 명령을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다. 그러나 보국은 예전에 계월의 위엄을 보았으므로 명령을 거역하지 못해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군문에 대령했다.

이때 계월이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다.

"보국이 어찌 이다지도 거만한가? 어서 예를 갖추어 보이라."

호령이 추상과 같으니 군졸의 대답 소리로 장안이 울릴 정도였다. 보국이 그 위엄을 보고 겁을 내어 갑옷과 투구를 끌고 몸을 굽히고 들어가니 얼굴에서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 작자 미상, 「홍계월전」에서 —

(나) 장끼 고집 끝끝내 굽히지 아니하여 ㉡까투리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니, 장끼란 놈 거동 보소. 콩 먹으러 들어갈 제 열두 장목 펼쳐 들고 꾸벅꾸벅 고개 조아 조츰조츰 들어가서 반달 같은 혀뿌리로 들입다 꽉 찍으니, 두 고패 둥그레지며 … (중략) … 까투리 하는 말이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남자라고 여자의 말 잘 들어도 패가하고,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

까투리 거동 볼작시면, 상하평전 자갈밭에 자락머리 풀어 놓고 당굴당굴 뒹굴면서 가슴치고 일어앉아 잔디풀을 쥐어뜯어 애통하며, 두 발로 땅땅 구르면서 붕성지통(崩城之痛) 극진하니, 아홉 아들 열두 딸과 친구 벗님네들도 불쌍타 의논하며 조문 애곡하니 가련 공산 낙망천에 울음소리뿐이로다.

— 작자 미상, 「장끼전」에서 —

① ㉠과 ㉡은 모두 상대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

② ㉠이 상대의 행동을 비판하는 반면, ㉡은 옹호하고 있다.

③ ㉠이 갈등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적극적인 반면, ㉡은 소극적이다.

④ ㉠이 주변으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반면, ㉡은 적대적인 반응을 얻는다.

정답 3번

NoteBase

간단한 해설

계월은 군사적 권위로 보국에게 명령하고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반면 까투리는 장끼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물러선 뒤**, 그가 화를 당하자 슬퍼하는 데 머문다.

선지별 해설

① X: 계월은 보국에게 명령을 내리고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며, 보국도 그 명령을 거역하지 못한다. 따라서 계월은 보국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 그러나 까투리는 장끼가 끝내 고집을 꺾지 않자 물러서므로, **상대를 따르게 할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X: 계월은 보국을 '거만한가'라고 꾸짖는다. 까투리도 '저런 광경 당할 줄 몰랐던가', '계집의 말 안 들어도 망신하네'라고 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장끼를 나무란다. 따라서 까투리 역시 상대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한다.

③ O: 계월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고 보국을 불러들인 뒤, 거만한 태도를 꾸짖고 예를 갖추도록 명령한다. 이는 권위를 행사하여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대응이다. 반면 까투리는 장끼가 고집을 굽히지 않자 '홀로 경황없이 물러서'고, 이후에는 슬퍼하며 통곡한다. 장끼의 행동을 바꾸지 못하고 물러선다는 점에서 **갈등 타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④ X: 보국은 계월의 명령에 화를 내고, 계월의 위엄에 겁을 먹어 몸을 굽힌다. 이는 호의라기보다 **권위에 눌린 복종**이다. 한편 까투리 주변의 자녀들과 친구들은 '불쌍타' 하며 함께 슬퍼하고 조문하므로, 까투리는 적대적인 반응이 아니라 **동정과 공감**을 얻는다.

NoteBase

문 15.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올바른 것은?

① 습관처럼 중요한 말을 되뇌이는 버릇이 있다.

② 나는 친구 집을 찾아 골목을 헤매이고 다녔다.

③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메이기 마련이다.

④ 그는 어린 시절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끼이다'는 물체 사이에 들어가 눌리고 빠지지 않게 됨을 나타내는 **'끼다'의 피동사**이다. 손가락이 기계에 낀 상황이므로 '끼이다'를 활용한 '끼이는'을 쓸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같은 말을 되풀이하여 말한다는 뜻의 기본형은 '되뇌다'이다. 어간 '되뇌-'에 '-는'이 붙으므로 '되뇌이는'을 **'되뇌는'**으로 고쳐야 한다.

② X: 갈 바를 몰라 이리저리 돌아다닌다는 뜻의 기본형은 '헤매다'이다. 어간 '헤매-'에 '-고'를 붙여야 하므로 '헤매이고'를 **'헤매고'**로 고쳐야 한다.

③ X: 음식물 때문에 목이 막힌다는 뜻으로는 '메다'를 쓴다. 어간 '메-'에 '-기'가 붙으므로 '메이기'를 **'메기'**로 고쳐야 한다.

④ O: '끼이다'는 '끼다'의 피동사로, 물체 사이에 들어가 눌리고 빠지지 않게 됨을 뜻한다. 손가락이 기계 사이에 낀 상황에 알맞으며, 어간 **'끼이-'에 '-는'**이 붙은 '끼이는'도 바르게 활용한 형태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 시대 영웅으로 소방관(消防官)이 있다.

② 과학자(科學者)는 청소년들이 선망하는 직업이다.

③ 그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연구원(研究員)이 되었다.

④ 그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변호사(辯護事)로 선임되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변호사'는 **辯護士**로 쓴다. 직업을 나타내는 마지막 글자는 '일 사(事)'가 아니라 **'선비 사(士)'**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소방관'은 消防官으로 쓴다. 消는 '사라질 소', 防은 '막을 방', 官은 '벼슬 관'이다. '소방(消防)'은 불을 끄거나 화재를 예방하는 일을 뜻하고, 官은 그 일을 맡는 **공무원**을 나타낸다.

② O: '과학자'는 科學者로 쓴다. 科는 '과목 과', 學은 '배울 학', 者는 '사람 자'이다. 과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者가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을 나타낸다.

③ O: '연구원'은 研究員으로 쓴다. 研은 '갈 연', 究는 '궁구할 구', 員은 '인원 원'이다. 연구소에서 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는 문맥이므로, **구성원이나 종사자를 나타내는 員**을 쓴다.

④ X: '변호사'의 한자 표기는 辯護事가 아니라 **辯護士**이다. '변호(辯護)'는 남의 이익을 위해 변론하고 옹호하는 일을 뜻한다. 여기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나타내는 '선비 사(士)'가 붙는다. 선지의 事는 '일 사'이므로 士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요인으로 많은 것들이 거론되어 왔지만, 의학사의 관점에서 볼 때 흥미롭고 논쟁적인 원인은 페스트이다. 페스트가 유럽의 인구를 격감시킴으로써 사회 경제 구조가 급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재래의 전통이 지니고 있던 강력한 권위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예컨대 사람들은 이 무시무시한 질병을 예측하지 못한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불신하게 되었으며, 페스트로 인해 '사악한 자'들만이 아니라 '선량한 자'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것을 보고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신과 교회의 막강한 권위에 대해서도 회의하게 되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죽음에 대한 경험은 사람들을 여러 방향에서 변화시켰다. 사람들은 거리에 시체가 널려 있는 광경에 익숙해졌고, 인간의 유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점차 옅어졌다. 교회에서 제시한 세계관 및 사후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삶과 죽음 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 새롭게 사유하기 시작했다.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은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로 이어졌으며, 이에 따라 신에 대한 무조건적 찬양과 복종 대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술사에서 두드러지게 포착된다. 인간에 대한 관심의 증대에 따라 인체의 아름다움이 재발견되었고, 인체를 묘사하는 다양한 화법도 등장했다. 인체에 대한 관심은 보이는 부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기존의 의학적 전통을 여전히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던 반면, 당시의 미술가들은 예술가이면서 동시에 해부학자이기도 할 만큼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①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② 페스트로 인한 선인과 악인의 무차별적인 죽음은 교회가 유지하던 막강한 권위를 약화시켰다.

③ 예술가들이 인체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함으로써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도 이루어졌다.

④ 르네상스 시기에 해부학은 의사들보다도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은 글에서 제시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바꾸었다. 고대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재평가는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으며, 인체의 아름다움 재발견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첫째 문단은 르네상스의 발생 요인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어 왔다고 밝히고, 그중 의학사의 관점에서 주목할 원인으로 **페스트**를 제시한다. 따라서 전염병의 창궐은 르네상스의 발생을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② O: 첫째 문단에서 사람들은 페스트로 사악한 자뿐 아니라 선량한 자까지 무차별적으로 죽는 모습을 보고 **신과 교회의 권위에 회의**를 품었다. 이러한 회의는 이전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교회의 권위가 약화되었음을 뜻한다.

③ X: 둘째 문단에 따르면 고대의 학문과 예술, 언어에 대한 재평가는 **중세의 지적 전통에 대한 의구심**에서 비롯되었다. 이 재평가에 따라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유가 활발해졌고, 셋째 문단에서는 그러한 관심의 증대가 인체의 아름다움 재발견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인체의 아름다움 재발견이 고대 학문과 언어의 재평가를 낳았다는 설명은 글의 인과 관계와 다르다.

④ O: 셋째 문단은 기존 의학적 전통을 신봉하던 의사들에게 해부학적 지식이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설명한다. 반면 미술가들은 인체의 내부 구조를 탐색하는 데 골몰했다. 이 대비를 통해 당시 해부학이 의사들보다 미술가들의 관심을 끌었음을 알 수 있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부분에 어울리는 한자 성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는 글씨를 쓰다 남은 먹을 버리기 아까워 그린 듯이 갈필(渴筆)의 거친 선 몇 개로 이루어져 있다. 정말 큰 기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언제나 서툴러 보이는 법이다. 그러나 대가의 덤덤한 듯, 툭 던지는 한마디는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

① 巧言令色
② 寸鐵殺人
③ 言行一致
④ 街談巷說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리한 비수'처럼 독자의 의식에 강한 영향을 준다는 뜻이다. **짧은 말로 핵심을 찌르는 힘**을 나타내므로 '촌철살인(寸鐵殺人)'에 어울린다.

공통 해설

'촌철살인(寸鐵殺人)'은 한 치의 쇠붙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뜻에서, 짧은 말로도 상대를 감동시키거나 약점을 찌를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의 길이가 아니라 **짧은 말에 담긴 예리함과 영향력**이다.

밑줄의 '툭 던지는 한마디'는 말이 짧고 간결함을, '예리한 비수가 되어 독자의 의식을 헤집는다'는 그 말이 독자의 생각을 날카롭게 파고듦을 나타낸다. 이 두 의미를 함께 담은 성어가 '촌철살인'이다. 비수는 실제 무기가 아니라 말의 힘을 드러내는 비유이다.

NoteBase

문 19. 다음 글에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만약 어떤 것이 과학일 경우 거기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 그들은 유의미한 문장의 기준으로 소위 '검증 원리'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검증 원리란, 경험을 통해 참이나 거짓을 검증할 수 있는 문장은 유의미하고 그렇지 않은 문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음 두 문장을 예로 생각해 보자.
(가) 달의 다른 쪽 표면에 산이 있다.
(나) 절대자는 진화와 진보에 관계하지만, 그 자체는 진화하거나 진보하지 않는다.
위 두 문장 중 경험을 통해 검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비록 현실적으로 큰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가)는 분명히 경험을 통해 진위를 밝힐 수 있다. 즉 우리는 (가)의 진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경험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 근거하여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가)는 검증할 수 있고, 유의미한 문장이라고 판단한다. 그럼 (나)는 어떠한가?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나)의 진위를 확정할 수 있는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그런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나)는 검증할 수 없고 과학에서 사용될 수 없는 무의미한 문장이라고 말한다.

①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하는 것은 과학이 아니다.
②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
③ 검증 원리에 따르면 아직까지 경험되지 않은 것을 언급한 문장은 무의미하다.
④ 검증 원리에 따르면 거짓인 문장은 무의미하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과학에서 쓰이는 문장은 반드시 유의미하므로,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한다면 과학일 수 없다**. 이는 '과학이면 유의미한 문장을 사용한다'는 조건문의 대우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글의 첫 문장은 과학이라면 거기에서 사용하는 문장이 유의미하다고 전제한다. 따라서 무의미한 문장을 사용한다면 과학이라는 전제를 충족할 수 없다. 이처럼 원래 조건문의 앞뒤를 바꾸고 각각 부정한 **대우**는 원래 조건문과 같은 진리값을 가지므로, 선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② X: '과학의 문장들만이 유의미하다'는 유의미한 문장이면 반드시 과학의 문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글에서 제시한 것은 **과학이면 사용하는 문장이 유의미하다**는 관계이며, 그 반대 방향까지 성립한다는 근거는 없다. 따라서 '과학에서 사용되는 문장은 유의미하다'로 고쳐야 한다.

③ X: 검증 원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경험했는지가 아니라 경험으로 진위를 밝힐 수 있는지**이다. 아직 실제로 관찰하지 않은 내용이라도 무엇을 경험해야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있다면 유의미하다. (가)는 검증에 큰 비용이 들더라도 진위를 확인할 경험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므로 유의미한 문장으로 판단된다.

④ X: 검증 원리는 문장이 참이어야 유의미하다고 하지 않는다. 경험을 통해 **거짓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도 유의미하다**. 무의미한 문장은 거짓인 문장이 아니라, 어떤 경험으로도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없는 문장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컴퓨터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나아가 컴퓨터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을까? 컴퓨터는 다양한 전기회로로 구성되어 있고, 물리법칙, 프로그래밍 방식, 하드웨어의 속성 등에 따라 필연적으로 특정한 초기 상태로부터 다음 상태로 넘어간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상태에서 세 번째 상태로 이동하고, 이러한 과정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즉 컴퓨터는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시스템에는 자유의지가 있을까?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의 중요한 특징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결과가 하나로 고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러한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그런 뜻에서 결정론적 지배를 받는다는 것과 자유의지를 가진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자유의지의 필요조건이기 때문이다. 결국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또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 시스템에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음은 당연하다.

<보기>
ㄱ. 컴퓨터는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으며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일 수도 없다.
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ㄷ.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도 귀속시킬 수 없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하므로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NoteBase

보기별 해설

ㄱ. O: 글은 컴퓨터를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는 시스템으로 본다. 이러한 시스템은 주어진 조건에서 결과가 하나로 고정되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으므로 자유의지가 없다. 또한 자유의지가 없는 시스템에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고 했으므로, 컴퓨터는 **자유의지도 없고 도덕적 의무의 귀속 대상도 될 수 없다**.

ㄴ. O: '자유의지가 없으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없다'의 대우는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으면 자유의지가 있다'이다. 또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의지가 없다'의 대우는 '자유의지가 있으면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이다. 이 두 관계를 연결하면, 도덕적 의무를 귀속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결정론적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ㄷ. O: 글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것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자유의지의 필요조건**으로 제시한다. 필요조건은 자유의지가 있으려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는 시스템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유의지를 가지지 않는다.

ㄱ, ㄴ, ㄷ이 모두 글에서 추론되므로, 세 보기를 모두 포함하는 ④에 해당한다.

NoteBase